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Literacy Competence and Life Satisfa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Single-Person Household: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and Digital Information Self-Efficacy

Jun-Su Kim*, Woo-Hong Cho*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Seowon University, Chungbuk,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the digital literacy competence of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alone affects their life satisfaction, with social capital and digital information self-efficacy serving as mediators. To achieve this, responses from 213 single-person households in the 2022 Digital Divide Survey on North Korean defectors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digital literacy competence did not directly influence life satisfaction. Second, digital literacy competence was found to enhance life satisfaction through the mediation of social capital. Third, digital literacy competence also improved life satisfaction via digital information self-efficacy. Fourth, it was revealed that digital literacy competence sequentially mediated life satisfaction through both social capital and digital information self-efficacy. Based on these findings, practical and policy alternatives for strengthening digital literacy competence, fostering social capital, and enhancing digital information self-efficacy are proposed.

▶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s, Single-Person Household, Digital Literacy, Social Capital, Digital Information Self-Efficacy, Life Satisfaction

[요 약]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자본과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의 북한이탈주민 자료 중 1인 가구 213명의 응답을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삶의 만족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사회자본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사회자본과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방안, 사회자본 형성과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 향상 방안의 실천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 디지털 리터러시, 사회자본,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 삶의 만족도

- First Author: Jun-Su Kim, Corresponding Author: Woo-Hong Cho
- *Jun-Su Kim (solrins@hanmail.net), Dept. of Social Welfare, Seowon University
- *Woo-Hong Cho (csdcj@hanmail.net), Dept. of Social Welfare, Seowon University
- Received: 2024. 11. 14, Revised: 2024. 12. 19, Accepted: 2024. 12. 19.

I. Introduction

북한이탈주민 입국자는 2020년 COVID-19 팬데믹 후 많이 감소해 2024년 9월 현재 34,259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점점 증가하리라 예측된다[1]. 북한이탈주민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을 감수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지만, 입국 후 사회 문화 적응 어려움 때문에 후회하기도 한다[2]. 북한이탈주민은 문화차이, 상대적 박탈감, 기대와 다른 현실, 경제적 어려움, 지지체계의 부족 등으로 삶의 만족감이 낮아진다[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고립감은 삶의 만족도 하락뿐 아니라 사회통합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과정에서 가족과 헤어지거나 가족을 두고 혼자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함에 따라 사회적 지지체계가 없는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4]. 가족은 새로운 사회적응을 위한 중요한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체계로 작용할 수 있어 적응 속도의 차이를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4].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새로운 사회 문화 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보다 1인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입국 후 하나원을 통한 사회 문화 적응 과정을 거친 후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낮은 문화와 정보격차로 어려움을 겪는다. 디지털 정보화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디지털 정보화 격차는 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초래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스마트폰 보유율이 96.1%를 넘어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도 2.71점으로 국민 평균 2.94점보다 낮다[5].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차이는 디지털 정보 격차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며 생활에 필요한 정보습득, 업무처리, 사회참여 등에 격차를 발생시킨다[6].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부족은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디지털 정보화 사회에서 디지털 정보화 역량은 자원 획득 기회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준거집단과 교류를 촉진하여 정체성 형성과 사회적 관계 향상에 영향을 미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7]. 디지털 정보화 역량을 활용한 디지털 공간에서의 사회적 교류는 계층 내, 계층 간 신뢰를 통한 호혜적 관계로 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가 모두 긍정적인 결과로 이루어진다

고 할 수 없으나 부정적 요소를 탐지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신뢰를 형성한 관계에서는 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8][9]. 이러한 관계에 대해 주목하고 실증한 연구결과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신뢰가 가는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8][10]. 또한, 디지털 정보화 사회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여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적응할 수 있다는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어 삶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자기 확증과 같은 긍정적 요소로 알려져 있으며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 향상이 삶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다[11][12]. 그러나 이들 관계는 단순한 인과관계 또는 단순 매개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디지털 정보격차가 사회통합과 불평등에 영향을 주고 개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정보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농어민,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5]. 그러나 이러한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관한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고, 이들 중 더 취약한 1인 가구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역량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경로를 사회적 관계 요인, 심리적 요인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분석하여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 삶의 만족도 향상과 대한민국 사회 문화 적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Preliminaries

2.1. Digital Literacy and Life Satisfaction

삶의 만족이란 삶 전반에서 인식하고 판단하는 욕구의 충족과 기대 수준의 충족이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 행복, 주관적 안녕과 같이 사용된다[13]. 개인의 욕구 충족과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대한민국 사회 문화 적응을 위한 경제적 지원 등 공식적 지원과 더불어 비공식적 자원의 접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삶의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다[9]. 특히 디지털 정보화

사회는 정보격차가 다양한 불평등을 양산하기 때문에 정보 격차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7]. 예컨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정보 검색, 상거래, 개인식별, 정부 민원 서비스 등 디지털 공간에 존재하는 유용한 정보의 접근과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SNS를 통한 디지털 공간에서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사회적 고립 예방과 필요한 도움을 얻도록 하여 삶의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다.

실증연구를 통해서도 북한이탈주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0]. 또한, 이러한 관계는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꾸준히 검증되고 있다[6][9]. 그러나 이와 달리 디지털 기기 이용 능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연구[14]도 있어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1.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Digital Literacy and Social Capital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관계에서 설명되기도 하지만,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활용한 사회적 자원의 접근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사회적 준거집단과 교류를 통해 정체감, 신뢰, 호혜적 상호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 관계를 사회자본이라고 정의하는데, 사람 사이에 배태된 문제해결을 하도록 작용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15]. 사회자본은 네트워크 안에 형성된 신뢰를 기반으로 상호 호혜성, 규범을 기반으로 작동하는데, 집단 내 결속이 강한 결속형 네트워크와 다양한 집단을 연결하는 가교형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이익을 공유하도록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사회 문화 적응에 도움을 주고 이로써 삶의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다.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검증되었고[8][10],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도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8][10].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2.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사회자본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Digital Literacy and Digital Information Self-Efficacy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디지털 정보화 기기를 활용한 정보에 대한 접근, 탐색 및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디지털 정보화 기기는 PC와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장치를 말하는데,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북한이탈주민의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5].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에 대한 일종의 신념으로 낯선 상황과 문제에 있어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한다[12].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삶의 태도에 있어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을 갖추도록 하여 자신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하고자 행동하게 한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16]. 반면,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접근 행위를 주저하게 되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12]. 실증연구에서는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통해 강화되고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요인이라고 검증하였다[12][16].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3.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Digital Literacy, Social Capital, Digital Information Self-Efficacy, and Life Satisfaction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네트워크 참여를 촉진하여 사회자본의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10]. 사회자본은 신뢰를 바탕으로 호혜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고 준거집단에 포함되면 다양한 정보와 자원 접근 기회를 얻을 수 있다[8].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는 사회적 고립감의 해소, 자원획득을 통한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 등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다[16].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의 디지털 정보화 능력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17].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인과적 관계에 대한 직접적 관계 내지, 단순 매개의 관계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사회자본과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에 대한 순차적 매개효과는 아직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자본과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이 매개할 수 있다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H4.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사회자본과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The Proposed Scheme

3.1. Research Model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 주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관계에서 사회자본,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의 순차적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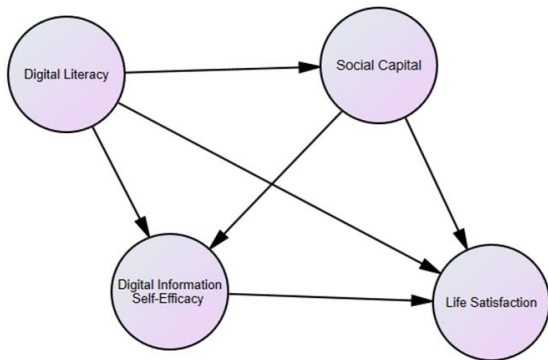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IV. Research method and Empirical Analysis

4.1. Data Collection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조사한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중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 213명의 응답을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독립변수,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 사회자본과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구조방정식(SEM)모형으로 분석하였다.

4.2 Development of the Measurement Items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는 Table 1과 같다.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DL)은 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 7문항,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생활 서비스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삶의 만족도(LS)는 5문항, 사회자본(SC)은 10문항과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DISE)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Table 1. Measuring tool

Variable	Concept definition	Ref
Digital Literacy (DL)	Ability to utilize mobile devices and ability to use daily services through mobile devices	Likert 4 α=.926
Social Capital(SC)	The total sum of social resources that can be given and received through social networks	Likert 4 α=.912
Digital Information Self-Efficacy (DISE)	Subjective confidence in comprehensive competencies required in the digital environment	Likert 4 α=.903
Life Satisfaction (LS)	Subjective satisfaction with one's life	Likert 4 α=.865

4.3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성별은 여성 150명(70.4%)과 남성 63명(29.6%)이었다. 평균 연령은 45.54세이고 연령대별로는 50대가 60명(28.2%)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53명(24.9%), 40대 50명(23.5%), 60대 이상 26명(12.2%) 30대 미만 24명(11.3%) 순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 분포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이 72명(33.8%)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이 69명(32.4%), 100만 원 미만이 60명(28.2%),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미만이 12명(5.6%)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n	%
Gender	Female	150	70.4
	Male	63	29.6
Age (year)	Below 30	24	11.3
	30 - 39	53	24.9
	40 - 49	50	23.5
	50 - 59	60	28.2
	60 and above	26	12.2
Monthly income (10,000 KRW)	Below 100	60	28.2
	100~200 less than	69	32.4
	200~300 less than	72	33.8
	300~400 less than	12	5.6

4.4 Sample Characteristics and Correlations of Variables

Table 3은 본 연구의 주요 변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평균 2.76으로 나타났고 사회자본은 평균 2.78이었으며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은 평균 2.71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평균 2.50으로 나타났으며 변수 분포는 왜도가 -.130 ~ -.495이었고 첨도는 -.129 ~ .583으로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 기준인 1과 3을 넘지 않아 등분산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3.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	m	SD	Min	Max	Skewness	Kurtosis
1 DL	2.76	.686	1.00	4.00	-.495	-.462
2 SC	2.78	.548	1.00	4.00	-.244	.583
3 DISE	2.71	.765	1.00	4.00	-.130	-.332
4 LS	2.50	.599	1.00	4.00	-.188	-.129

잠재변수 간의 상관성 파악과 판별타당도 검증을 위한 상관관계분석은 Table 4와 같다. 디지털 리터러시(DL)와 사회적 자본(SC) 간의 상관계수($r=.562, p<.001$),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DISE)과의 상관계수($r=.568, p<.001$), 삶의 만족도(LS)와의 상관계수($r=.464, p<.001$), 사회자본(SC)과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계수($r=.593, p<.001$), 삶의 만족도와 삶의 상관계수($r=.619, p<.001$),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DISE)과 삶의 만족도(LS) 간의 상관계수($r=.464, p<.001$)도 정(+)적 상관을 보였고, 상관계수의 최대 값이 0.7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18]. 또한, Table 5의 측정 모형 분석 결과와 함께 고려할 때, 상관계수 제곱 값과 척도의 AVE 값을 비교해 본 결과 상관계수 제곱 값이 AVE 값보다 더 작아 판별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18].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1	2	3	4
1 DL	1			
2 SC	.562***	1		
3 DISE	.568***	.593***	1	
4 LS	.464***	.619***	.464***	1

*** $p<.001$

V. Analysis results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사회자본과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Table 5

와 같은 측정모형 분석과 Table 6과 같은 구조모형 분석, Table 7과 같은 매개효과 분해와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측정모형분석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인 χ^2 값이 145.368($df=42$), $p<.000$ 의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인되어 모형이 적합하지 않았지만, $\chi^2(Cmin)$ 값이 표본 크기가 증가하면서 모형과 자료 간 불일치성이 과도하게 추정하는 오류가 있어 다른 적합지수(CFI, TLI, GFI, NFI, RMSEA, SRMR)를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CFI=.946, TLI=.929, GFI=.907, NFI=.914로 나타나 모형 적합도 기준 .090 기준에 부합하고, RMSEA=.083, SRMR=.045로 수렴할 수 있는 범위였다[18]. 잠재 요인을 구성하는 관측 변수의 표준화 추정 요인 부하량도 .630~.921이었다. 각 구성 개념별 개념 신뢰도(C.R)가 0.7 이상이며 평균분산 추출(AVE) 값이 .05 이상으로 신뢰성과 집중 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18].

Table 5. Measurement model analysis

Variables	Estimate		SE	CR	(CR)	AVE	
	B	β					
DL	Mobile Utilization Life Services	1.000	.759		.949	.903	
	Mobile Utilization Ability	1.203	.753	.164			7.315***
SC	Bonding Social Capital	1.000	.812		.981	.963	
	Bridging Social Capital	1.067	.846	.102			10.501***
DISE	DISE 1	1.000	.905		.988	.955	
	DISE 2	1.069	.921	.051			20.933***
	DISE 3	1.046	.870	.056			18.527***
	DISE 4	.802	.672	.069			11.656***
LS	LS 1	1.000	.809		.990	.952	
	LS 2	1.054	.773	.088			12.002***
	LS 3	1.044	.789	.085			12.311***
	LS 4	1.07	.771	.089			11.972***
	LS 5	.985	.630	.105			9.387***

*** $p<.001$

$\chi^2=145.368(df=84)$, $p=.000$, CFI=.946, TLI=.929, GFI=.907, NFI=.914, SRMR=.045, RMSEA=.083

Table 6의 구조모형 분석결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beta=.562, p<.001$),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beta=.343, p<.001$),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beta=.420, p<.001$), 사회자본이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beta=.401, p<.001$),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beta=.262, p<.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able 6. Structure model analysis results

경로	B	β	SE	CR
DL→LS	.079	.079	.100	.791
DL→SC	.507	.562	.089	5.716***
DL→DISE	.481	.343	.135	3.556***
SC→LS	.465	.420	.112	4.157***
SC→DISE	.624	.401	.141	4.427***
DISE→LS	.186	.262	.064	2.906**

** p<.01 *** p<.001

Table 7에서는 매개효과 분해 및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한 결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사회자본과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384$). 이러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신뢰구간은 .213 ~ .706으로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able 7. Mediation Effect Decomposition and Significance Testing

경로	B	S.E.	β	Indirect confidence interval
Direct Effect				
DL→LS	.079	.142	.079	-.141~.459
Indirect Effect				
DL→SC→LS	.236	.082	.236	.114~.474**
DL→DISE→LS	.090	.060	.090	.020~.262**
DL→SC→DISE→LS	.059	.026	.059	.019~.139**
Total Indirect Effect	.384	.099	.384	.213~.706**
Total Effect	.463	.117	.464	.255~.733**

** p<.01

VI.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사회자본과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선행연구[6][8][9]와 반대의 결과이고,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 선행연구[1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단순한 기술적 능력이 삶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단선적 효과

보다 기술 활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효익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중요하지 않다는 선부른 결론을 짓기보다 더 다양한 디지털 정보 접근 및 생활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사회자본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사회자본을 매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선행연구[8][10]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고, 중고령자의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이 사회적 자본을 매개하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선행연구[9]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다양한 사회적 준거집단과 교류를 통한 정체성의 확보, 다양한 집단과의 연결을 통한 정보 수집 및 자원 접근성 강화를 통한 욕구 해결과 기대 충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적극적인 정보 활용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참여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중심의 네트워크 활동, 동년배, 거주지역 주민 모임 등을 소개함으로써 준거집단에 포함되도록 지원하고, 정보의 교류와 자원의 획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디지털 정보화 자신감을 향상하고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주장한 선행연구[11][12]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또한, 장애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적 고립이 해소되고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16]와 맥을 같이한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단순한 삶의 만족을 유인하는 요인을 넘어 복잡해지는 디지털 정보화 사회에서 다양한 상황과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을 갖도록 하여 삶의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배움터와 같은 교육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복지시설 이용률이 높지 않은데, 이들 중 1인 가구의 경우 사회적 관계망이 많지 않아 교육 정보 수집이 취약하다. 따라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디지털 배움터와 같은 정보화 교육을 개설하고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의 참여

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이 형성되도록 실생활 중심의 교육내용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구직정보, 상거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등에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사회자본은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 삶의 만족도를 높임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사회자본,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 그리고 삶의 만족까지 이르는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10][11][12]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통한 사회자본의 축적은 준거집단의 소속감과 심리적 효능감을 높여 삶의 만족도를 향상한다고 주장한 선행연구[17]도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통한 사회자본의 축적은 준거집단의 소속감과 심리적 효능감을 높여 삶의 만족도를 향상한다고 주장한 선행연구[17]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는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도 사회적 지지감이 부족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정보접근성, 자원 접근성이 낮아 삶의 만족도가 낮을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향상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과 사회자본 축적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사회자본은 다양한 집단과의 교류를 촉진하며 준거집단에 소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준거집단 소속감은 정체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긍정적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17]. 즉,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가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으로 이어지도록 격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1인 가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회자본과 디지털 정보화 자기효능감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통한 간접효과만은 확인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부 상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더 많은 이론적 검토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조사한 2차 자료를 데이터로 사용하였기에 측정 도구가 측정 개념을 모두 반영하였다고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어 후속 연구를 통한 보완도 제기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Unification,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Entry Numbers", Ministry of Unification, 2024.
- [2] Kim, M. R. "The Effect of the Adjustment Stress and the Social Support on the Depressive Symptoms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7(1), 193-217, 2005.
- [3] Kim, A. N. "Life Satisfaction and Its Influencing Factors among North Korean Refugees", *Asia-pacific Journal of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8(11), 453-465. 2022. DOI : 10.47116/apjcri.2022.11.35
- [4] Kim, H. A., Cho, Y. A. & Kim, Y. A. "The Experience of the One-Person Household among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4(4), 321-353. 2014. DOI : 10.15709/hswr.2014.34.4.321
- [5] Korea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Promotion Agency. "2022 Digital Information Gap Survey". 2022.
- [6] Jung, U. B. & Hur, J. S. "A Study of Digital Information Literacy Effects on the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Person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25(4), 1-27. 2022. DOI : 10.22896/karis.2022.25.4.001
- [7] Kim, M. C. & Kim, J. K. "Digital Divide: Conceptu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36(4), 123-155. 2002.
- [8] Cho, S. H. "The Effects of Digital Informatization Level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on Daily Life Satisfa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24(6), 65-72. 2023.
- [9] Yoon, H. J., Shin, H. R. & Kim, Y. S.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vel of Digital Information Usage and Life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Social Capital, Informatization Policy, 27(4), 85-100. 2020. DOI : 10.22693/NIAIP.2020.27.4.085
- [10] Heo, S. M. "Effect of North Korean Refugees' Social Relationship Mobile Use on Life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 of Social Capital",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24(9), 2027-2036. 2023. DOI : 10.9728/dcs.2023.24.9.2027
- [11] Choi, H. L. & Song, I. U.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the Elderly's Digital Information Literacy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6), 246-255. 2020. DOI : 10.5762/KAIS.2020.21.6.246
- [12] Song, H. J. "Consideration to Influence Factor of Using Internet Information and the Second Digital Divide: Focus on Users' Digital Literacy, Perceived Awareness, and Self-efficacy"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18(2), 85-116. 2014.
- [13] Berggren, N. & Bjørnskov, C. "Institutions and life satisfaction. *Handbook of labor*", Human Resources and Population Economics, 1-48, 2020. DOI : 10.1007/978-3-319-57365-6_192-1
- [14] Lee, H. J. & Park, M. K. "Older Adults' Digital Divide and Life

- Satisfaction : Comparing Mobile and PC-based Digital Divide”,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9(2), 209-241.
2020. DOI : 10.22897/kipaj.n.2020.29.2.007
- [15] Kim, J. S. & Kim, S. Y. "Examining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f Non-regular Social Workers on Job Performance and the Mediating Effect of Job-esteem,"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34(3), 143-167, 2020. DOI : 10.18398/kjlgas.2020.34.3.143
- [16] Park, S. M., Kim, H. S. & Park, H. K. "The Effect of Digital Literacy of the Disabled on Social Isola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Journal of Social Science, 61(1), 223-243. 2022. DOI : 10.22418/JSS.2022.4.61.1.223
- [17] Hwang, S. H.. & Lee, H. S. "A Study on the Effects of Life Satisfaction on Social Capital: An Analysis of Mediating Effect of Settlement Consciousness and Self-Efficacy",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 33(2), 1-36, 2019. DOI : 10.24210/kapm.2019.33.2.001
- [18] Bae, B. R. Amos 21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oul: Cheongram. 2014.

Authors



Jun-Su Kim Received the Ph.D. degrees in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Jeonbuk National University, in 2019. Dr. Kim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Seowon University, Chungbuk,

Korea, in 2022. The main interesting fields are Social work practice and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Community organization, Elderly welfare,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Woo-Hong Cho Received the Ph.D. degrees in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Chosun University, in 2007. Dr. Cho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Seowon University, Chungbuk, Korea, in

2014. The main interesting fields are social welfare and social welfare policy,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elderly welfare, community welfare.